

지난시간엔 <신앙인의 착각>이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방향을 잃은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사도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겉으로 거룩해 보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당신들도 죄인(罪人)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3장에 들어왔습니다. 3장을 전체로 보면,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이라는 논지(論之)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구절인 3:9을 봅시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울과 그의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이미 선언(宣言)하였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인입니다>를 공식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本質)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런 결론에 이르는 과정(過程)을 보여줍니다. 먼저 바울은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만 의롭고 참되시다는 바울의 주장에 반론(反論)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의 전반부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전개는 사실은 매우 독특합니다.

아시는대로, 로마서는, 바울신학의 결정체(結晶體)이며, 기독교신앙을 집성(集成)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신앙의 편지입니다. 그는 지성인(知性人)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대 유대 최고의 학파에 속했던 수재(秀才)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의 신자들에게 이 서신을 썼을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질문들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질문들은, 그가 여러 차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만나본 사람들의 반응(反應)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리 서신 안에 예상질문(豫想質問)과 그 답변(答辯)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상적인 지성을 가진 학자(學者)요, 지혜로운 변론가(辯論家)라 하겠습니다. 그는 이런 논쟁적(論爭的)주제(主題)를 잘 다룰 수 있는 수준의 사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변론과 그의 답변을 통해, 진리에 더 가까이 접근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가지의 질문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스스로 질문한 것도 있고(1,3절), 반대자들의 질문도 있습니다(5,7)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해 하나씩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9절은 결론을 내립니다.

I. 4가지 질문기법

1. 하나님이 유대인을 잘못 선택하신 것인가? (1-2)

문(問): “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 ?(1절)”

유대인의 위선에 대해서 2장 후반부에 바울은 아주 강한 도전을 했습니다.

2:24절에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했고, 마지막절 29절에서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말을 듣는 유대인은 마음한 쪽으로는 분노가, 다른 한쪽으로는 그래도 뭔가 유대인의 장점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 사도는 여기서, 전체적인 답을 합니다.

답(答): “ 법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2절) ”

사도는 유대인의 유익한 점이 많다고 대답합니다. 비록 유대인이 율법을 실천하는 데 실패해서 죄인들이 되었지만, 유대인은 모든 면에서 여전히 특권(特權)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사람과 민족을 평가하는 데, 매우 균형 잡힌 시각(視覺)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우리는 가끔 극단주의(極端主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극단주의(極端主義)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흰 것이 아니면 검은 것이다’라는 이중적사고(二重的思考)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흑백논리(黑白論理)라고도 합니다. 왜 색(色)이 흑(黑)과 백(白)만 있습니까? 황색(黃色)도 청색(靑色)도 회색(灰色)도 있습니다.

인생살이나, 신앙생활이나, 대단히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나 신앙의 방정식(方程式)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살다보면, 성공하는 일도 있고, 실패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하루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내 삶에 손해 일수도 있고, 실패하는 것이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방정식의 결론이 날 때까지 흑백의 구분을 인간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도 합니다.

흑백논리로 자신을 보면, 한 가지를 실패하면, 모든 인생(人生)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자살(自殺)도 마다하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단점(短點)을 이야기하다가, 장점(長點)까지 팽개치고,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되어서 절망(絶望)하고, 자기를 학대(虐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가 크게 실수하는 한 가지는, 편향(偏向)된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2장에서 본 것처럼 유대인의 중심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사는 죄인들이라고 하니, 독자들이 모든 유대인을 경시(輕視)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의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외식(外飾)이 문제인데, 그들이 노력하는 경건(敬虔)자체까지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방향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그들의 말까지 잘못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지키되, 행위는 따르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면, 그들의 ‘말’까지 버리려고 합니다만,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그것을 구분할 줄 아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도 그렇게 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보듯, 그렇게 나 자신과, 형제자매들을 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나를 실망시키는 삶을 살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나의 전부(全部)를 부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롬9:4-5에 보면, 사도(使徒)가 보는 **이스라엘백성들의 특권(特權)**에 대해 나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마 어마한 축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비록 자기(自己) 동족(同族)이, 이방인과 다름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는데, 담대했지만, 그들의 모든 삶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인간의 삶은 천차만별(千差萬別)입니다. 한 사람의 내적세계도, 다양하고 심지어는 서로 모순적(矛盾的)이기도 합니다. 내안에도 여러 자아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시고, 심판하시지만, 다 싸잡아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안에 있는 흑(黑)과 백(白)을 함께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정확하게 판별(判別)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나쁜 것만 들춰내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것을 들추어내어서, 상급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 두 번째 문답은 3-4절입니다. 그것은,,

2. 어떤 유대인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망가트리는가? (3:3-4)

문: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3)”

NIV. “What if some were unfaithful? Will their unfaithfulness nullify God’s faithfulness?”

* 인간의 unfaithfulness가 하나님의 faithfulness를 폐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신실치 못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는데, 그들이 그것을 잘못 감당했으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손상이 가서,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백성에게 신실한 하나님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대답이 의외입니다. “(성경에)기록된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4)”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not at all >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말합니다. 오해(誤解)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낙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 예견하셨을 것입니다.

사도는 이어서 말합니다(4후). 기록된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바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바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구약성경 시편 5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다윗은,

“대저 나는 내 죄과(罪科)를 아오니, 내 죄(罪)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 51:3-4).

이 시편구절은, 다윗의 유명한 참회시(懺悔詩)입니다. 다윗이 충신 우리야를 죽이고(살인) 그의 처 밧세바를 취한 죄(간음)를 참회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임금으로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세였기에 다윗은 생각했는지 몰라도,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대언(代言)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그것을 참회합니다. <나는 내 죄과(罪科)를 아오니, 내 죄(罪)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인정입니다.

누가 이긴 것입니까? 다윗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다윗의 불의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트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십니다. 다윗과 그의 가문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울 뿐입니다.

지금 사도는, 유대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다윗 한 사람만 보아도 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성군(聖君)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범죄(犯罪)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참회(懺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성(罪性)을 깊이 볼 때에야,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경건생활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의 신실하지 못함을 깊이 느꼈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낙심대신 하나님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와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God's faithfulness)은 **인간의 신실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신실함은 항상 조건적(條件的)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전제(前提)를 가지고 사랑합니다, 당장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만일 종국에 그 기대에 결국 미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고, 떠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신실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3)”
답은 No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고 합니다.

* 이제 두 개의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더 사악한 질문입니다.

3번째 질문은,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다룹니다. 5-8절입니다.

3.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니, 하나님이 진노를 내릴수 없다 (3:5-6)

문(問) :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不義)가, 하나님의 의(義)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나?”

이 질문의 배후에는,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을 빛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 없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것 참 얼토당토 않는 소피스트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의의 원인(原因)을 하나님에게 돌려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에덴에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범죄하게 만들었으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적합한 예 하나가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가룟유다는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것이므로, 심판(審判)받을게 아니라, 상(償)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를 넘쳐 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마26:24)”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불의(不義)가 정당화(正當化)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惡)을 합리화(合理化)하는 괴변(怪辨)이요, 변명(辨明)에 지나지 않습니다.

답(答): 5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6절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정당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6-10절에서 이미 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요, 심판자이십니다. 그는 유일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바울은 변론가들의 가장 사악한 주장을 하나 더 소개함으로,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7-8절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선(善)을 이루기 위해서 악(惡)을 행하자는 논제입니다.

4.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할 수 있지 않느냐의 문제. (3:7-8)

문(問): 7.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8.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세 번째 문제(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의에 기여했으니 벌줄수 없다는)의 확장선상에 있습니다. 한결음나가 선을 이루기위해 악을 행하자는 극단적(極端的) 주장(主張)입니다.

여기서 <나>는 바울이 아닙니다. <사악한 변론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紹介)한 것입니다. 이 주제는 오늘날의 모든 세계에서 통하고 횡행(橫行)하는 문제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역사(歷史)는 이긴자의 역사(歷史)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역사(歷史)에 정의(正義)는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은 인류의 역사를 집약(集約)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현실입니다.

답(答): 이런 주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8절 후반 절에 있는 말씀,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定罪)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설명이 생략되어있지만,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主管者)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를 힘있는 인간이 주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를 보면 영웅호걸이 지배하던 세상은 간데 없고, 제국들과 나라들은 쇠퇴해 왔습니다. 성경은 만유의 주재가 되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이 말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오해를 받았다는 정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방법으로, 선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숨걸고 선을 이루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II. 정리(整理)와 결론(結論)

지금까지 바울사도는 4가지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1. 하나님이 유대인을 잘못 선택하신 것인가? (1-2) 2. 인간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망가지는가? (3-4) 3. 어떤 유대인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니,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에게 진노할 수 없는가 (5-6) 4.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좋은가? (7-8)

이 모든 질문들을 통합해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흠집내려는 시도(試圖)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세상의 끊임없는 속성이기도 한 것이지요. 세상은 신본주의(神本主義)를 거절하고, 인본주의(人本主義)를 택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진정한 자유(自由)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탈종교화, 탈신앙화를 가속화(加速化)해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들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1. 하나님은 잘못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많지만, 흑과 백을 함께 보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니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보신다.
2.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앙(un-faithfulness)으로 인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faithfulness) 이시다.
3. 인간의 신실하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흔들 수 없다.
4. 하나님은 결코 선(善)을 위해서 악(惡)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조장(助長)하시거나, 기획(企劃)하시는 분이 아니고, 다만 악(惡)일지라도 선용(善用)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따라서 결론은 자명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3:9절입니다.

9.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What shall we conclude then? Are we any better? Not at all! We have already made the charge that Jews and Gentiles alike are all under sin.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외이다>라고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이든, <헬라 그리스도인>이든 다 죄아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제 우리가 의인(義人)이라고 하는 것만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죄를 짓고 삽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그의 칭의(稱義)하심을 입은 자인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할지라도, 완전함에 이르는 길은, 여전히 우리의 앞에 있고 자주 실패하지 않습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말씀은 아주 격렬한 토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토론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그런 반이성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토론(討論)이 허용되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이성(理性)입니다. 모두가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반박하려는 토론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진리를 알도록 허용되어있지 않다하더라도, 의문(疑問)이나 반문(反問)에 대하여 성실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은, 신앙의 대상의 믿을만함에 달려있습니다. (Faith depends on the reliability of the object of faith) 그 점에 대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신실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죄인이라 불리기 합당한 자들입니다. 혹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라고.

이 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서 지나치면 앞에서 말한, 신앙인의 착각에 빠지게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救援)의 확신과 기쁨**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이 기본(基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의 죄성(罪性)에 대한 깊은 인식이, 바로 신앙의 문(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기본(基本)설정을 벗어나면, 바로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될 결정적(決定的) 사건에 반드시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3:15-16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구절의 전후를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과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 달려가는 성도(聖徒)들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성을 알고, 자신을 죽이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바울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선하신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견지하면서 나아가야만, 우리의 신앙여정에 계속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말은, 자칫 사람들의 감정선(感情線)을 자극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격렬히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참되심을 압니다. <하나님만 참되시다> 라는 말은, 인간은 죄인(罪人)이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신앙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믿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되려는 욕망을 접는 것이요, 겸손해지는 지금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영원하심을 찬양드립니다.

당신은,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 주시고, 아무리 불가능할 것 같아도, 꼭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불의가 주님의 의를 드러냄을 인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고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여정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